

**그레이 플라즈마 세라믹으로 새로워진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Fifty Fathoms Bathyscaphe)**

블랑팡의 빈티지 다이버 워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쓰리-핸즈(three-hand) 버전의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Fifty Fathoms Bathyscaphe)가 플라즈마 그레이 세라믹 소재로는 올해 처음으로 선보여진다.

블랑팡은 이제 대표적인 코어 컬렉션이 된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Fifty Fathoms Bathyscaphe)의 쓰리-핸즈 모델을 재해석하여 깊은 바닷속을 연상시키는 딥블루 컬러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그레이 플라즈마 세라믹 케이스에는 변형 방지를 위한 합금소재, 리퀴드 메탈(Liquidmetal®)로 인덱스를 표시한 블루 세라믹을 삽입하여 그 매력을 배가시켰다. 케이스는 신비로운 메탈 색깔을 내기 위한 기술로 탄생한 그레이 플라즈마 세라믹으로 만들어져 오묘한 매력을 뽐낸다. 플라즈마 그레이 세라믹은 2014년에 선보여졌던 한정판, 오션 커미트먼트 바티스카프 크로노그래프 플라이백(Bathyscaphe Chronographe Flyback Ocean Commitment)에도 사용되었던 소재이다.

블랑팡 다이버 워치 컬렉션 중 하나인 바티스카프는 1950년대말에 남성용과 여성용 두 가지로 첫선을 보였다. 지난 2013년에는 탄생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최초의 모델을 연상시키는 새로운 매력의 바티스카프 모델이 선보여진바 있다. 이전 모델들을 떠올리게 하는 심플한 디자인에 빈티지 시계의 느낌을 살린 핸즈와 날짜를 표시하는 작은 창이 특징적이다. 베젤 위의 야광 인덱스를 통해 잠수를 하는 동안 베젤에 표시된 야광 인덱스를 통해 최적의 가독성을 확보하여 바티스카프의 기본에 충실하고자 했다.

모든 다이버 워치가 그러하듯, 각각의 모델은 모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단방향 회전 베젤이 장착되어 있다. 잠수를 하는 동안 끊임없는 초침은 시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인디케이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Fifty Fathoms Bathyscaphe)는 300m 잠수가 가능하며, 견고함과 정밀한 측정 능력을 갖춘 셀프 와인딩 칼리버 1315가 장착되어 있다. 3개의 메인 스프링 베럴을 지녀 5일동안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무브먼트이며,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현대의 기술력이 담긴 이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다. 무브먼트의 밸런스 스프링은 시계 산업에 큰 혁신을 가져온 부품으로 잘 알려진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가볍고 충격에 강하며 자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밸런스 스프링의 완벽한 기하학적인 구조는 시계의 정확성과 정밀함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

스포츠 워치로서의 사용에 알맞게 이 다이버 워치에 장착된 칼리버 1315는 글로시드류(Glucydur, 베릴륨, 구리, 철 등의 합금 소재로 부식에 강하며 온도에 따른 팽창률 차이가 적어 시간 오차 감소에 기여) 밸런스 휠과 골드 사각-헤드 형태의 레귤레이팅 스크류를 통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 모델은 세 개의 링이 달린 NATO 스트랩 또는 캔버스 스트랩 중 선택하여 매치할 수 있다.